

30년내 세계 운명 바꿀 '5대 위기의 날'

■美 국제 전문잡지 선정

▲2008년 4월11일(이라크연방 지역정부 구성 유예 종료일) =이라크 18개 주(州) 가운데 1개 주 또는 그 이상이 주민투표를 통해 입법·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날이다.

현재 지방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곳은 '쿠르드족 자치지역'이 유일하지만 일부 시아파 정파들은 이라크 남부의 9개 지역을 하나의 시아파 지역정부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시아파자치지역'은 이라크의 항구와 이라크 석유보유량의 80%를 장악하게 돼 소수인 수니파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포린폴리시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며 이라크 의회가 지역정부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상할 것이며 미국이 이라크 원유수입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토록 이라크 의회에 압력을 넣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같은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08년 8월8일(베이징 올림픽 개막일) = 중국의 국운이 '짱하고 해뜰 날'이다. 중국의 경제는 지난 1978년 이후 10배 증가했고, 중국의 경제가 커진 만큼 국제사회는 중국의 군사력증가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잡지는 지적했다.

"2008년 4월11일, 2008년 8월8일, 2014년 1월20일, 2032년 1월1일 그리고 2038년 1월19일" 미국에서 발행되는 국제관계 전문잡지인 '포린폴리시'는 3월호에서 향후 30여년내에 '인류 최후심판의 날'은 아니더라도 세계를 바꿀 날로 5개의 날짜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중 인권 드러나는 '베이징올림픽 개막일' 에너지 대란 예상 2032년 1월1일 등 포함

캐네기재단 중국전문가인 앨버트 키타 연구원은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더 많은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발전해 나가는 중국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림픽을 계기로 시위가 발생하고 중국당국이 이를 진압하면 중국의 인권에 안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어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1월20일(부시 대통령 기록 공개일) = 미 정보공개법에 따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5년 후인

2014년 1월20일엔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 기록이 공개요구대상이 된다. 9·11사태를 둘러싼 비화는 물론,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테러와의 전쟁 기획 및 추진과정에 대한 숨은 얘기들이 낱낱이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2032년 1월1일(미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날) = 미국 석유위원회는 장기적으로 2032년 1월1일이 되면 천연가스 생산이 예상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포린폴리시는 전했다.

미국에서 천연가스는 이미 전체 공급 에너지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들어 공급도 줄어들고 있어 그 때가 되면 '에너지대란'이 닥칠 것이라는 것이다.

▲2038년 1월19일(유닉스컴퓨터시스템 오류 발생일) = 시간을 나타내는 데 있어 32비트 정수를 사용하고 있는 유닉스컴퓨터시스템은 지난 1970년 1월1일부터 초를 계산해왔는데 21억4천748만3천647초를 넘어서는 셀 수 없게 돼 있어 현재 유닉스컴퓨터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는 전세계의 많은 중요 시설에 대란이 예상된다 포린폴리시는 지적했다.

오는 2038년 1월19일 3시14분07초가 되면 유닉스컴퓨터 시스템의 시간은 1901년 12월13일 오후 8시45분52초로 바뀌게 돼 전체 시스템에 엄청난 오류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연합뉴스

比 어린이 인질극 무사히 풀려나

10시간만에 종료

필리핀 수도 마닐라 시청앞에서 28일 빈민촌 탁아소 원장이 원생들을 상대로 벌였던 인질극은 발생 10시간 만에 무사히 마무리됐다.

마닐라 외곽 톤도 지역에서 탁아소를 운영하는 준 두캇은 운전사와 함께 자동차총과 수류탄, 권총 등으로 무장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탁아소의 어린이 32명과 교사 2명을 버스에 태워 인질극을 벌이다 오후 7시(현지시간)

경찰 협상팀과의 합의대로 인질들을 모두 풀어주고 경찰에 투항했다.

이에 앞서 두캇은 이 지역 배우 출신 상원의원인 라몬 레비야와 만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한 어린이가 고열증세를 보이자 우선 풀어주기도 했다. 두캇은 이날 오전 자신의 탁아소에서 어린이와 교사들을 야외여행을 가자고 유인해 미리 준비한 버스에 태운 뒤 마닐라 시청으로 들어가려다 경찰의 저지를 받자 인질극을 벌였다. /마닐라=연합뉴스

"日, 위안부 문제 진실 우롱 말라"

WSJ 사설에서 비판

"일본이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변국들과의 진정한 우호도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위안의 말'(Words of Comfort)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베 일본 총리가 이달 초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발언하는 등 "일본이 또다시 진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의 위안부 발언이 동아시아 주변국들을 격분시킨 것은 물론 미국 하원에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이 상정되는 등 미국에서도 대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일본은 오랫동안 군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대해 인정하기를 꺼려왔으며 1993년에야 (고노담

화를 통해) 겨우 위안부 동원에 후회(remorse)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놀라운 것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한국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 전임자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문제로 악화된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던 아베 총리가 이런 터무니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또 아베 총리의 위안부 발언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도 여의치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실제로 이번 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이 일본의 위안부 착취 문제를 들어 피압 일본인들의 행방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日, 위안부 강제동원... 성 강요·학살"

美 세계사 교과서에 명시

일제 종군위안부의 강제 동원 사실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세계사 교과서에는 일본군이 당시 위안부들을 강제 동원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미국내 수천개 학교에서 세계사 교과서로 쓰이는 '전통과 만남: 과거에 대한 세계적 조망(Tradition & Encounters: A Global Perspective on the Past)'에는 위안부 문제가 비교적 자세히 기술돼 있으며 일본군이 최대 30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강제로 모집, 징집해 (행위를) 강요했다(forcibly recruited, conscripted, and

dragooned)"고 명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위안부들의 사진까지 곁들이는 책은 이어 "14~20세의 여성들이 '위안소'라고 불리는 군 매춘소에서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일본군은 위안부들을 "일왕의 선물"이라며 병사들에게 제공했으며, 이들은 한국과 대만, 만주, 필리핀 등 동남아 각국으로부터 (끌려)왔는데 80%가 한국 출신이었다"고 책은 기술했다.

책은 또 강제 동원된 위안부들이 "날마다 20~30명의 남자들을 상대해야 했으며, 전쟁 지역에 머물렀기 때문에 병사들과 똑같은 위험에 노출돼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았다"고 적었다. /워싱턴=연합뉴스



'인간 한계도전' 사막 마라톤 27일 모로코 남부 사하라에서 진행된 제 22차 사막 마라톤의 3구간 경주 중 참가자들이 우아르자자테 남쪽 350km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7일동안 모로코 남부지역 230km를 걸어야 한다. /AFP=연합뉴스

"2009년 화성 공동탐사하자"

중·러 합의

중국과 러시아가 2009년 공동으로 화성 및 위성을 탐사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과 홍콩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러시아를 방문중인 순라이엔 중국 국가 우주항공국장은 26일 아나톨리 페르미노프 러시아 연방우주국장과 양국 공동화성 탐사 협정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2009년 화성과 제1위성인 포보스를 공동으로 탐사하게 된다.

계획에 따르면 양국이 러시아측 운반로켓에 러시아측 포보스 탐사선과 중국측 소형 위성을 함께 실어 발사하게 되면 중국 위성은 화성의 타원 궤도를 돌게 되고 포보스 탐사선은 샘플 채취를 위해 포보스에 상륙하게 된다.

중국측 위성과 러시아측 탐사선은 공동으로 탐사 자료를 분석해 지구로 송신하게 된다는 것이 양국 협정서의 내용이다. 러시아측 탐사선엔 또 홍콩 이공대가 연구 제작한 행성표토분석시스템이 장착될 예정이다.

중국 언론들은 두 나라의 화성 공동 탐사는 우주개발 역사에서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것이며 향후 대규모 우주 공동개발을 위한 일보를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포보스는 화성의 두 위성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27일 크렘린에서 모스크바 '중국의 해' 행사에 참석한 중국 사물림(少林)사 출신 승려에게 자신의 사진 위에 서명을 해주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안쪽에 위치한 위성으로 1971년 11월 미국의 화성 탐사선 매리너 9호가 근접 촬영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 40여년간 미국, 러시아, 유럽 연합(EU), 일본 등이 30여차례에 걸쳐 화성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화성 탐사 계획을 추진했으나 이중 3분의 2가 실패로 돌아갔다. /성하이=홍콩=연합뉴스

'네트워크 준비지수' 한국 15→19위

WEP 세계 122개국 평가 '기업 인터넷 활용'은 1위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준비지수(NRI) 순위가 14위에서 19위로 5계단 밀려났다.

네트워크 준비지수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경제포럼(WEF)이 국제적인 MBA스쿨인 인세아드(INSEAD)와 공동으로 개인, 정부, 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발

전도와 경쟁력을 국가별로 평가한 측정치이다. WEF가 28일 발표한 122개국의 2006년도 NRI순위를 보면, 2005년도에 3위였던 덴마크가 1위로 치고 올라왔으며, 1위였던 미국은 7위로 떨어졌고, 8위였던 스웨덴이 2위로 경추 뛰어 올랐다.

세부 평가 항목을 보면 우리나라는 기업의 인터넷 활용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2위), 초고속인터넷 요금 저렴도(2위), ICT 확산 정도(3위), 인터넷 학교 보급률(4위), 전자정부 준비도(5위)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제네바=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4월 2일 첫전도 개강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고용보험재직근로자 수강료 환급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본원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971-0002 (백마트 횡단점 옆 광주은행 4F)

희소식 수료 합격과정

기장주부 실업자 지방취직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수강료 환급

출석률 80%이상시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무관*

전국 최강의 강사진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유명 출판사 저자 직강*

탁월한 합격 시스템

출결관리, 학습 성취도에 따른 개별 분석지도, 자습실, 사물함 무료 사용

한빛 A+ 현대고시학원 236-2467~8 (동부경찰서 옆)

국가직/지방직 시험대비

www.mdgosi.co.kr

김종규 광주직강!

개강 4월 5일

담/리/교/수	김종규 교수님
개/강/일	2007년 4월 5일(목), 4월 12일(목)
강/의/시/간	매주 목요일 18:00~22:20
수/강/장/원	300명 선착순 접수, 수강료 60,000원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경찰직 수험생 및 직장인(20~40세) 공무원합격 절호의 기회!

교정직 특채

360명 남자:329명 여자:31명

시험일정: 5월 13일 개강 4월 2일

원시접수: 4월 9일~4월 15일

시작부터 합격까지! 합격생들에게 100%검증된 서울고시학원에서 합격의 꿈을 이루세요!

서울고시학원 복구청 맞은편 (062) 251-7959

2007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합격률=한빛이었다!

www.hanbitgosi.co.kr

공무원

9급문제풀이, 9급이론반, 9급교정직특채 문제은행

개강 4월 2일

복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234-0234 (한빛수험생 특별 첫전도 개강)